

개천절 일자(日字) 문제 고찰과 제언

박 창 범

소남천문학사연구소 / 고등과학원

I. 개천절 일자 문제 재론의 필요성

양력 시월 삼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서 단군의 개국을 경축하는 날이다. 국경일로서의 개천절은 1949년 당시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기로 하고, 그 기념일을 양력 10월 3일로 정한 데에 기인한다. 민간과 종교집단에서는 적어도 구한 말 때 이미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고 기념행사나 제천의식을 하여 왔었다. 또한 적어도 대략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10월에 추수감사제와 같은 축제가 대규모로 열리고 제천의식이 행사되어 왔었다.

나라를 되찾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국회가 민족 최초의 국가 성립을 기념하고, 이 땅의 각지에서 출몰하여 왔던 여러 나라들의 공통의 시원을 밝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법률로서 공인하려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날짜를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당시 정부는 개천절을 양력 10월 3일에 기념하는 안을 내었고, 이를 회부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천절의 일자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여,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변환하여 개천절로 정하자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부 안과 법사위 수정안 사이에 서로 타협을 찾지 못하고 논란 끝에 결국 투표로써 양력 10월 3일 안이 가결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 법률이 제정된 지 59년이나 지났지만 그간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개천절의 일자 문제를 학문적 논의를 거쳐 다시 고민해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¹⁾. 그런데 당시 국회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시 국회 회의기록을 보면 개천절의 일자를 정하는 방향에 대해 국회의원들 사이에 표 1과 같은 견해들이 있었다.

표 1. 1949년 9월 21일 제5회 국회임시회의 기록에 나온 개천절 제정 관련 안과 의원 발언 내용.

	가. 양력 10월 3일 안(정부 안)	나. 단군조선 개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일자 안(법사위 수정안)
동의 사항	양력일이어야 함	
동의 사항 이유	전 세계가 양력을 씀	문명국가에서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기 어려움
이견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군 개국일에 대해 학설이 구구함. 2. 단군의 개국은 음력이 있기 전의 일이고 歲首의 불확실 등으로 인해 양력 변환이 불가능함. 3.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건국 초에 할 일이 아님. 4. 양력 10월 3일이 개국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날씨가 좋고 오곡이 풍성하여 계절적으로 개국을 기념하기에 편리함. 단군이 하필 추운 때에 건국을 하지 않았을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력 10월 3일은 古來로 지켜오던 성스러운 날로서 輕히 변경할 수 없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해서는 안 됨. 2. 음양력 변환은 대략 2천 수백 년 간의 것이 알려져 있지만 曆家에 부탁하여 그 이전의 시기를 수학적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음.

이 기록에 나타난 양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자는 정부 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실성과 편의성에 사고의 기본을 두고 있다. 국가 운영을 위해 많은 법률을 제정 반포해야하는 시기에 가능해

1) 1996년 11월에 총무처에서 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본인에게 단군개국일자의 양력 환산문제를 의뢰하여 온 일이 있음을 보아 그러한 논의를 정부가 직접 시도한 적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역사 연구의 집적 및 계산기의 발달에 따라 국경일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 변화에 의한 것이다.

보이지도 않는 날짜 변환을 한가로이 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며, 양력 10월 3일이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날씨가 좋고 먹을 것이 풍요한 때이어서 이날이 실제 날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개국을 자축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이라는 주장이다. 반면에 단군 개국일을 찾고 음양력 변환을 하자는 의원들의 생각은 개국의 상징성과 전통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력 10월 3일 개천절’ 결정은 역사와 역법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었던 국회의원들 간의 불과 하루 사이의 짧은 논의에 의해,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비학문적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학문적 재조명과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발표가 이러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단군조선에 대해서는 나라의 존속기간, 강역, 신화내용 등 여러 연구주제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단군조선의 개국년과 일자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II. 단군조선 개국년

본인은 이 발표를 통해 음력 10월 3일을 새로운 개천절로 정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제언을 하기에 앞서 다른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삼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던 원래의 이유 (표1 참조)의 대부분은 이제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계절이 좋아서 개국일로 적합하다는 발상은 자의적 주장이어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문가에게 양력환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유효한 상황이 아니다. 다만 과연 단군개국일이 정확히 알려져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인데, 이는 실제로는 이 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안에 있어서 공통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 계산을 통해 음력 초하루(朔日)를 양력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무리 먼 과거까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歲首)을 정하는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면 과거 어느 시점이던 간에 음력일을 양력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²⁾. 따라서 단군개국일이 양력으로 환

2) 물론 과거의 음력일을 정확히 양력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단군조선의 건국시대와 같이 역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떠나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기전 2333년에 있었던 초생일을 모두 천체역학적 계산에 의해 양력으로 구하면, 이 중에 시월에 해당하는 초생일은 2-3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산 가능하냐의 문제는 이제 환산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고, 단군개국일의 규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현행 “양력 10월 3일 개천절”은 본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안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본래의 설득력마저 잃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당시 수정안으로서 제시되었던 안, 즉 단군 개국일을 양력일로 환산하여 이를 개천절로 삼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단군 개국일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단군 개국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국년과 그 해의 일자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단군 개국년은 중국 堯의 즉위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단군 개국년을 알기 위해서는 요의 원년을 알아야 한다. 결국 단군 개국일 규명 문제는 1. 요 원년, 2. 요의 원년으로부터 단군조선의 개국년까지의 해수, 3. 단군조선 개국 월일, 이렇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표 2. 중국 堯의 원년에 대한 설.

	한국			중국				
요원년	辛丑	戊辰 BC2333	甲辰 BC2357	戊辰 BC2333	甲辰 BC2357	丙子	丁未	辛卯
요25년			戊辰 BC2333		戊辰 BC2333			
요50년	庚寅	丁巳		丁巳				
비고	삼국사기가 인용한 古記	삼국사기 一然. 북송 유서의 설	東國通鑑. 서진 황보 밀의 설	北宋 劉恕	西晉 皇 甫謐, 宋 邵雍			

그런데 요의 원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들이 존재한다. 표 2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던 요 원년에 대한 설들을 요약한 것이다. 고려시대 일연이 찬한 삼국사기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며 단군의 개국년을 요 50년 경인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요의 원년이 신축년임을 뜻한다. 일연은 요 50년이 실제로는 정사년이기 때문에 이 기록은 그릇되었다고 주를 달았는데, 이는 요의 원년을 무진년으로 잡은 것이고, 요 원년 무진년 설은 북송 유서의 설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요의 원년을 갑진년으로 잡는 서진 황보밀의 설을 따르기 시

작하였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설이다. 중국에서는 이 외에도 병자설, 정미설, 신묘설 등이 제기되어 있다. 따라서 요의 원년은 정확히 밝혀지거나 한 가지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몇 가지의 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표 3. 단군조선 건국년 관련 기사 일부.

출전	저자/발간연도	인용서/원기록문(건국년)
三國遺事	一然 (1206 - 1289)/1281?	魏書/與高同時 ³⁾ , 古記/唐高即位五十年庚寅(唐高即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권1
帝王韻紀	李承休/1287	並與帝高興戊辰 ⁴⁾ -하권
牧隱集	李穡 (1328 - 1396)	我東方國於唐堯戊辰歲-文彙 권9
高麗史	金宗瑞, 鄭麟趾, 李先齊 등/1454	本國與堯並立 - 권114
朝鮮王朝實錄	1452-1454 (세종실록 지리지)	本國與堯並立 - 태조실록 권1 唐堯戊辰歲 ... 檀君古記/檀君與唐堯 同日而立-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日省錄	조선	檀君之與帝堯並立 - 정조3년
陽村集	權近(1352 - 1409)/1396	始古開關東夷主(時唐堯元年戊辰也) - 권1 應製詩
龍飛御天歌	정인지, 안지, 권제/1445	唐堯戊辰歲 - 권1 제9장 本國與堯並立(檀君開國實唐堯戊辰歲也) - 권6 제41장
歷代世年歌	權暉 ⁵⁾ /1436	始開東國號朝鮮 並與帝堯興戊辰
應制詩註	權擘 ⁶⁾ /1462	古記/檀君 與唐堯同日而立
三國史節要	盧思愼, 徐居正 등/1476	時唐堯戊辰歲也 - 권1
東國通鑑	徐居正 등/1484	是唐堯戊辰歲也 古紀/檀君與堯並立於戊辰 ... 此說可疑 今按堯之立在上元甲子甲辰之歲 而檀君之立在後二十五年戊辰 則曰與堯並立者非也 - 外紀
筆苑雜記	徐居正 (1420 - 1488)	古記/檀君與堯同日而立
東國輿地勝覽	1530	唐堯戊辰歲 - 권51 평양부
東國史略	朴祥 (1474-1530)	唐堯二十五年戊辰
海東異蹟	洪萬宗/1666	時唐堯二十五年戊辰歲也

3) 高 또는 唐高, 唐堯란 堯를 뜻한다. 요의 성은 이기(伊耆), 이름은 방훈(放勳), 호는 도당씨(陶唐氏)이다.
 4) 제왕운기는 本紀와 檀君本紀를 인용하여 단군의 건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건국년도에 대해서는 인용서를 밝히지 않았다.
 5) 권제(1387-1445)는 응제시를 지은 권근의 아들
 6) 권람(1416-1465)은 응제시를 지은 권근의 손자

둘째로는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문헌 중에서 단군조선과 관련된 기사가 처음 나오는 곳은 1145년에 김부식이 찬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인데 東川王 24년 조의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어서 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개국년을 처음 언급한 문헌은 삼국유사인데, 이 때부터 단군조선 건국년에 관련된 고문헌 기록들의 일부를 표 3에 실었다. 삼국유사에는 두 가지 설이 제시되어 있다. 일연은 먼저 <魏書>를 인용하여 단군이 堯와 같은 때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고⁷⁾, 두 번째로 요50년 경인년에 세웠다고 하고서 요 원년은 무진년이었기 때문에 이 해는 실제로는 정사년이었다는 주석을 달았다. 그러나 요 원년에는 여러 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빙성이 더 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연은 요 원년 무진설을 따른 것뿐이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후 13세기 말에 출간된 제왕운기부터 동국통감이 출간된 15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삼국유사가 인용한 古記 이외의 모든 고문헌들은 일관되게 단군조선의 건국년이 요의 원년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종실록은 심지어 건국일까지 요의 즉위일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 기록들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단군조선 개국년이 요 원년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요 원년이 무진년이라는 것이다. 일연의 주를 통해서도 당시에 요 원년 무진설이 우리나라에 사실로서 받아들여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의 개국이 무진년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제왕운기는 단군조선 개국년이 요의 원년과 같기 때문에 무진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484년에 서거정 등에 의해 간행된 동국통감에 처음으로 단군조선의 건국년이 요25년이라는 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이는 단군조선 개국년을 무진년으로 잡은 뒤, 요 원년 갑진설을 따랐기 때문이다. 요의 원년이 갑진년이라면 무진년은 요25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는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존재한다. 즉 13세기에 서 15세기 후반까지의 기록들은 삼국사기의 고기 인용 부분 이외에는 예외 없이 단군조선이 요나라와 같은 해(또는 때)에 세워졌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가 무진년이라고 밝기도 한다. 즉 이 시대에 단군조선의 개국년 기사의 주 내용은 요의 원년이라는 것이고, 무진년이라는 것은 부수적 내용이다 (표 3 참조). 단군 원년이 무진년이라는 것은 요 원년 무진설을 따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국통

7) 이 기록은 단군조선이 요 원년과 같은 해라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비슷한 시기 또는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정도로도 볼 수 있다 (김정배 2003).

감은 이를 망각하고 干支만을 중요시하여 단군 건국년을 무진년으로 받아들인 뒤, 요 원년 갑진년설을 채택하여 단군 건국년이 요 25년이라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요 원년을 갑진년으로 고쳐 잡는다면 단군조선의 개국년도 갑진년(BC2357)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간지의 사용이 서기전 24세기까지 거슬러 간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⁸⁾ 단군조선의 개국년이 애초에 간지로 알려져 있었을 리가 없으며, 주요 주변국의 개국년과 상대적인 해수로 나타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군조선 개국년에 대한 고문헌의 기록에서 요의 원년과의 비교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이고 간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국통감의 발간 이후로 요 원년 갑진설과 단군조선의 개국년 요25년(BC2333) 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구한말과 대한민국에까지 그 설이 정설로 사용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총 세 가지 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지하여야 할 사실은 본래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군의 개국년을 요 25년(BC2333)으로 잡는 것은 15세기 말에 요 원년을 새로이 갑진년으로 채택하면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즉 단군조선 개국년에 대한 혼선은 요 원년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15세기 말에 채택한 요 원년 갑진설을 받아들인다면 단군조선 개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인 BC2357로 정하는 것이 옳다. 반면에 그 이전에 채택하였던 요 원년 무진년 설을 받아들이면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역시 요 원년인 BC2333년 무진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단군조선 건국 기사가 처음 나왔던 13-15세기의 기록에 따라 단군조선의 개국년을 요의 원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III. 단군조선 개국일

이상에서 단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 여러 문헌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개천절 날짜를 정하려면 단군조선의 개국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단군조선의 개국일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헌은 없다.

8) 중국에서 간지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商(BC1600 - BC1046)대의 갑골문에서부터이다. 商의 수도는 은허(殷墟)이다.

표 4. 10월 제천의식과 개천절에 대한 문헌 기록 일부.

출전	저자/발간연도	원기록문(제천의식)
三國志 夫餘	陳壽/3세기말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酒歌舞 名曰迎鼓
三國志 高句麗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隧穴 亦以十月迎以祭之
三國志 韓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後漢書 濊	范曄(398-445)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後漢書 韓		馬韓 ...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魏書 高句麗	魏收/554, 559	常以十月祭天, 國中大會
晉書 馬韓	房玄齡/644	至十月農事畢, 亦如之.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謂爲天君
南史 高句麗	李延壽/7세기중엽	以十月祭天大會
北史 高句麗	李延壽/7세기중엽	常以十月祭天
三國史記 新羅	金富軾/1145	眞興王 三十三年 冬十月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三國史記 雜誌	金富軾/1145	後漢書 云 <高句麗>好祀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隧{隧}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北史 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唐書 云 □□<高句麗 ... 祀靈星及日...每十月王皆自祭 古記 云 □□<濫祚王>二十年春二月, 設壇祠天地. 三十八年冬十月 <多婁王>二年春二月, <古尔王>五年春正月·十年春正月·十四年春正月, <近肖古王>二年春正月, <阿莘王>二年春正月, <腆支王>二年春正月, <牟大王>十一年冬十月, 並如上行
三國史記 列傳	金富軾/1145	眞興大王 十二年辛未 ...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弓裔 光化元年 冬十月 始作八關會
高麗史	金宗瑞, 鄭麟趾, 李先齊 등/1454	有摩利山(在府南 山頂有彗星壇 世傳檀君祭天壇)-권 56 지리지
朝鮮王朝實錄	1452-1454(세종실록 지리지)	摩利山(傳朝鮮檀君祭天石壇)-권148 지리지
	1909.1.15	羅喆 등의 檀君教 창립(훗날 대종교)
동아일보	1921.11.2(음10.3)	開天節 慶賀式
官報 제6호	1948.9.8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官報 號外	1949.10.1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함.
官報 제3014호	1961.12.1	공화당 군사정부. 연호에 관한 법률 - 단기연호사용 폐지.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구한 말에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한 것은 시월에 추수감사제, 종교의식

(始祖神), 호국의식 등의 성격을 띤 천신제를 열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을 고려하여 이때를 단군조선의 개국일이 있는 달로 삼은 것에 기인한다.

또 3일을 채택한 것은 그것이 예로부터 신성한 수로 여겨져 왔으며⁹⁾, 달이 생기충만한 초생 상태를 보이는 날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¹⁰⁾. 실제로 삼국유사에 소개된 단군신화에는 “환인·환웅·단군”, “천부인 세 개”, “무리 3천 명”, “풍백·우사·운사”, “삼칠일” 등 수치 3이 여러 번 등장한다.

비록 음력 10월 3일이 단군조선의 개국일자라는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2천년 동안 시월에 제천행사를 하며 하늘에 제사를 드려왔던 것은 국내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 주지의 사실이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따르면 부여에는 영고(迎鼓), 예에는 무천(舞天), 고구려에는 동맹(同盟)이라고 불리는 제천행사가 시월에 거행되었다 (표 3 참조). 또한 황해도 구월산(三聖祠), 강화도 마니산 등지에 제천단이 있어 단군에 제사를 지내왔음이 기록되어 왔다¹¹⁾. 국가적 제천의식 때 국조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묶어 10월에 단군조선의 개국을 기념하였고 보는 것은 크게 무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토의 및 제언

위의 검토를 종합하면 단군조선의 건국년은 요 원년과 같은 해이고, 양력으로는 BC2357년(요 원년이 갑진년인 경우) 또는 BC2333(요 원년이 무진년 경우) 등이라 할 수 있다. 요 원년에 대한 설들이 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졌던 무진년설과 갑진년설 만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¹²⁾. 또한 개국일은 음

9) 우실하(2004)는 북방 샤머니즘의 ‘3수 분화의 세계관’의 기원에 대해서 “북방 샤머니즘의 중요한 관념 체계인 三界九天說, 宇宙數 관념, 三魂一體說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최초의 태극관념인 三太極/三元太極 관념과도 이어진다. ... 북방샤머니즘의 사유체계에서 성수 3이나 3의 배수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수 3의 기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주의 구조를 상·중·하 삼계 혹은 天界·人界·地界의 삼계로 나누는 사유 체계에서 기원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10) 동아일보 1928년 11월 23일자 개천절 기사

11)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표 3 참조.

12) BC2333년을 택하는 경우는 언뜻 현행과 같은 해로 보이지만 현행 서기전 2333년은 단군개국년을 요 25년으로 잡아 양력으로 변환한 것이다. 현행과 같이 요 원년을 BC2357년(갑진년)으로 잡는다면 단군개국년 역시 BC2357년이 된다. 요 원년 갑진년설을 고수하자면 단군조선 개국년을 고쳐 잡으면 되는 것이다.

력 10월 3일로 삼는 것은 오랜 전통을 이어받는 가장 자연스런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단군조선의 건국년월일 지정에 대한 본고의 결론은 요 원년인 BC2333년 무진년 또는 BC2357년 갑진년으로, 건국일은 이 해 음력 10월 3일로 잡는 것으로 요약된다.

1949년 국회에서 제안된, 그러나 채택되지 못했던 안을 따르자면 단군조선의 개국일 BC2333년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이를 개천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를 반대하였던 의원들의 지적과 같이 이 시대는 아직 음력이 사용되고 있지 않던 때이므로 BC2333년까지 거슬러 음양력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적당한 역법(歲首 결정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는 개천일을 찾는 의의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¹³⁾. 또한 앞서 강조한대로 단군조선의 개국년은 요 즉위 원년이라는 것에는 상당한 문헌적 뒷받침이 있지만, 요 원년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력 환산이 유일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이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단군조선의 건국년을 요 원년으로 잡자는 것과 함께 개천절을 앞으로는 양력이 아닌 음력 10월 3일로 정하자는 것이다. 태음력은 달의 위상을 따라 날 수를 세어나가는 방법이다. 태양력은 계절의 주기적 변화를 날 수로 세어나간다. 그런데 일년의 길이는 달의 위상주기의 정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태음력이 해의 변화도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1년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고, 그 길이를 맞추는 방법이 바로 역법인 것이다. 한해에 달을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바로 고대에 음력을 사용한 나라들의 역법이었던 것이다¹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양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태음력은 달이 차고 이질어짐에 따른 날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조수간만의 정도를 바로 알려주는 등 현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알려주는 달력이다. 즉 태양력은 태양의 운동에 따른 계절의 변화는 충실히 알려주지만 달의 운동에 따른 지구상의 변화는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다. 동양의 고대사를 살펴볼 때 단군조선시대에도 달의 위상을 따라, 즉 음력으로 날을 세어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개천일을 기념하려면 음력을 따라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13) 그러나 이 변환이 크게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1년의 변화는 분명하기 때문에 수 천년이 지나도 음력이 1-2달 이상 양력과 달라지지는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계절변화를 따르기 위해 보정을 해나가는 역법을 태음태양력(음양력)이라고 한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이 역시 음력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949년 10월 1일자 관보에 공고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의 네 날을 양력 일자로 국경일을 삼았다. 이 날들을 태양력으로 정한 이유는 당시 국회 기록에 나타난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표현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개천절의 시월 삼일 이것은 분명히 작년까지 음력 시월 삼일로 이렇게 거행해왔는데 음력과 양력을 병행하는 것이 도저히 문명국가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은 역사가에 부탁을 해서 단군이 등극하던 그 개천절을 지방 양력으로 고쳐서 ...”

즉 개천절을 음력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음력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이었다. 위의 4대 국경일 중에서 개천절 이외의 세 날들은 모두 근세의 일들이므로 태양력으로 정확한 날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음력으로 기념하던 전통이 없던 날들이다. 따라서 오래 동안 음력을 따라 기념하던 개천절을 이 날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양력으로 기념일을 정한다는 것은 국경일로서의 그 상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음력일로써 개천절을 정하면 양력 환산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논란을 모두 피할 수 있다. 앞서 단군조선의 개국년 문제는 요의 즉위년에 대한 이설들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개국년은 단군조선의 개국일자를 양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천절을 음력으로 정하자는 본고의 제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록 개천절이 음력으로 고정되면 양력 날짜로는 매년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 불편함은 음력을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개천절의 상징성을 드높이는 소득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민족의 축제인 설날과 추석, 그리고 석가탄신일과 같이 음력으로 기념일을 삼는 날들이 공인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민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인데, 오로지 개천절만이 그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기념일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개천절이 국초에 우리의 것(음력)을 경시하는 시각과 국제화에 대한 맹목적인 의욕으로 인해 성급히 양력으로 정해졌지만, 이제라도 개천절 본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력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정배, 고조선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단군학 연구, 제9호, 17쪽, 2003
- 동아일보, 1921년 11월 2일(음10. 3)자 개천절 기사
- 서영대,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47-81
- 송호수, 단군사상과 민족주의,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353-382
- 우실하, 동북아 샤머니즘의 성수(聖數: 3.7.9.81)의 기원에 대하여, 단군학 연구, 제 10호, 207쪽, 2004
- 이은봉, 단군신앙의 역사와 의미,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299-331
- 제5회 국회임시회의기록집 제3호, 1949. 9. 21
- 최병헌,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단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157